

〈資 料〉

倭政下 定期刊行物 所在

國樂關係記事 (2)

東洋音樂研究所 資料室

◎ 목 차

〈개 벽〉

濟州島의 民謠五十首 (康 奉 玉) :

〈別乾坤〉

朝鮮은 메나라나라 (露 雀) :

朝鮮民謠의 時數 (安 自 山) :

〈朝 光〉

나와 大笏 (金 桂 善) :

나와 玄笏 (張 寅 滉) :

◎ 일러두기

- 이 글은 倭政下에서 刊行된 定期刊行物(신문·잡지)에 수록된 國樂關係記事의 轉載 二回分이다.
- 이번 輯에서는 月刊誌「개벽」·「朝光」·「別乾坤」을 대상으로 했다.
- 轉載에 있어 본래의 철자법과 띄어쓰기를 그대로 따랐다.
- 「개벽」, 서울: 경성개벽사, 1920— . (영인본).
- 「別乾坤」, 서울: 경성開闢社, 1926—1934. (서울경인문화사, 1977).
- 「朝光」, 서울: 京城朝光社, 1935— . (영인본, 서울학연사).

濟州島의 民謠五十首

—맷돌가는女子들의 주고받는노래—

康 奉 玉

民謠는 그國民性的의表現된뜻이라함은 누구나 다 아는바이다. 알하民謠의價値가어찌하다함은 이제 새삼스럽게 말할必要가 없것습니다. 다못恨스러운것은 우리民族의노래는 넘우나荒野에버리워진것가튼그것이외다. 이것은 濟州島의主張女子들이 부르는노래을시다 露骨의單調로운「리리크」로써 참으로 우리民族이 人情에줄이고 사랑의憧憬에 心情의샘(泉)이넘쳐나는 설음이올시다. 赤裸裸인 粗野의人間의神聖한美의赤子입니다. 「리즘」은 凡庸의압해구을느고 壯嚴한形式압해 翻覆하야 무어라는追從업고怯懦업는純潔한人間性, 素朴한哀訴, 恫업는告白이原始的의旋律로써노래한 「센티멘탈」의美입니다. 濟州島의民謠에 女子들이맷돌(磨石)을갈세에 부르는노래와 潛娥(海女)들이부르는노래와 양대(朝鮮笠子를억는것) 역글썸, 망건(網巾)썸썸에 부르는노래, 農夫들이김멜썸부르는노래, 其他歌曲의「메로데이」로부르는牧童의소리, 漁夫의소리들이만혼중에 이것은女子들이맷돌을갈세에 두사람이나三四人을勿論하고 한사람이 노래를주면 그다음사람이살하서 『코-라스』를부르는것이올시다. 「세-레」가 『가장설음에서 넘쳐난노래가 가장아릿다운詩歌라』는말과가티 이曲調는秋蔭에서 嗚咽하는매암(蟬)의 哀調입니다. 古體의語調와方言이만흥으로歷史의메스力이적은 나에게는아즉理解치못할語意가 만혼것은 다만 여러어른의밖으신理解를비는바이며 살하後日에朝鮮民謠의若干을 모아드릴가합니다. 사람사람이우 리民族의 노래에 갖가이와서 「키스」하시오.

離虛島리라 이허도리라
이허, 이허 離虛島리라
이허도가면 나 눈물난다
이허말은 마라서 가라
올머가면 남 이나웃나

大路한길 노래로 가라(노래 부르며가거라는말)
갈새보니榮華로가도
돌아올센花旃이러라(花旃은喪輿를말함)

離虛島는 濟州島사람의傳說에잇는섬(島)입니다. 濟州島를西南으로風船으로四五日가면갈수잇다합니다. 그러나누구나갓다운사람은업습니다. 그섬은바다가온대水平線과가튼平土섬이라하며, 언제던지 雲霧로돌러끼고 四時長春봄이라하며 멀리 세상을쳐난仙境이라구 濟州島사람들이 憧憬하는理想郷이올시다.



元의아들元자랑말라, (元은郡守를말함)
臣의아들臣자랑말라,
선분가듯내父母계시던, (선분은先天的福分이아닌가?)
元도臣도무섭지안타,
元臣任도 위 나루다리(橋) (元이나臣도一木橋처럼위대한길이다)
길은 무삼 한길이런고. (우리의一生도一木橋로가는것이라는뜻)



서울서울어대가 서울,
한술밤을 열눔이먹어,
설이사니 서울이러라.
서울時勢 1 오르고 나려
여기時勢 1 한時勢러라.



서울담은목소리조하,
구비江南소남에안져,
朝鮮國을 기울이더라.



서울 물넌(沙)白물내소래
드뎛어 보니 사르릉한다,
그 소래란 반기어 들어
돌아드런 三年아러라.



兄난길로나도나는,
兄은곰고나는구져라,
구진前生가리는날은,
내나아나리야마는, (閻羅王이人間의罪惡을가

리는날에만약내가나지아니하얏드면조홀것을)
달이엿서九月이던가,
달이엿서九月이던가,
前生子진九月에나는,
九月菊도내벗이러라.



벗이집에벗(友)보려가니,
벗은엿고 게집만셔라. (셔라는잇서라)
벗의게집床보는床은 (食床가저다니는床은)
中盤에도山脈이러라 (발싸른床에山脈가티담어
노흔모양)
삼담가티 잉어(戴)온머리, (삼담은麻糸를말함)
색은 비단 모깃이러라. (색은비단과가티모지러
진다는말)



갈적으란 가노라하더
울적으란 오노라하더
神主안태 이피(岡)로들어 (神主는그洞里를지킨
鬼神인듯)

이피놈다구 저피로가는
더욱놈흔 당산피러라.



조흔조흔술(酒)란먹어든,
놈고놈흔座우에안져,
나도갈섬(島)마련이러라,
(御使道가술을먹어서自己를어느섬(島)으로 귀
양(鬮)보내려구자정하는모양)



섬(島)의절(波)도 울어도근심,
바다 절(波)도 울어도근심,
하나同生물넘겨노하,
病이잇술 근심이러라.



근심겨워아니든잠은,
날이샌(曙)줄몰나라한다,
새는날엔 어머니오며,
새는달엔 아버지오라
새나, 마나, 새거나, 말거나.



새야새야여근양말나,
참새도사 제여근짖어

아해매진(結)그물(網)에든다
산다하나못산다하나,
불근쌈에 김(사마귀)이나보라,
任의德에 먹음도쌈도
이(齒)로 신물나련이러라. (나린다)



나거들난男子로나라,
나거들난君子로나라,
남의君子몸에나나라.



몸에든病술(酒)에드는, (몸에病이잇는데다술을
먹기始作하니)
드난날줄몰나라한다, (病이드니나을줄을아지못
한다는말)
三年묵은 삼어지통에, (삼어지桶은藥넣는그릇
인듯)
一千藥은다들어셔도,
내病에는藥업서라.



어머니알흔妖疾이런가,
아버지알흔妖疾이런가,
한울가운 시내란넘어 (한울가운은머나먼대라는
뜻)
남의關에날보내던가. (우리父母가妖病을알앗는
지워나를이와가티면대시질을보내던가)



밤에가고, 밤에온손임,
어느고을(郡)누군줄알리,
저문암헤靑버드남(木)에
이름姓名쓰고나가라.



아들잇스면銀擲에가고,
아들업스면石擲에가라,
아옴아기, 열아기나는,
文先王도 소남(소나무)에간다.



새던트새(되새바람)사르를부는,
집든任은(배에 짐시른任)몇날에올고.



물엿바늘(水中에 바늘)쫘쫘히주셔,
鋪山비단쫘치에너허,

父母사려 서울을가니,
사잔이는 만터라마는,
父母가튼 한분이업다.

◇

초승달은반달이라도,
一萬國을기우려본다.
담은올어 날이나 샌다,
내야운들 어느날새리.

◇

어선새는낮(晝)에도운다,
어선새는밤에도운다,
요새저새날가튼새야,
밤낮물라 우엽새려라.

◇

내前生이얼마나하면,
잠결에도새한숨쉴다,
한숨담담안먹힌소리,
東南風에날어나가라.

◇

먹어보라 시절엔물가,
먹어보라 대절엔물가,
물이마춘한마치라도,
씩은나무도다난樵藪,
어틸보는 진상(進上)이런고,
마치조하 진상이리라.

◇

人間世上나나린날에,
남은아니났스런마는,
남난날에나도났스면,
남이운들내어니올라,
남은아니올어라마는,
限이업는내 눈물이여,
절에가는占者와巫女,
이내前生같이어보라,
元天綱의八字라하면,
울지나말아살아나불결,
일천간장척은물은,
소사올라눈물이리라,
눈에눈물새한숨아니면,
(눈물과한숨이엮섯든들)
내 눈물은어디가질고.

◇

물이런가道近넛(地名道近川)물은,
소섬(牛島)으로 미리내(銀河水)려라.

◇

이리도사命썩르던가, (이리도사는이와가터)
命도썩른내父母몸에,
나도아니나리여한다,
한올가운晚竹덴서도, (잇서도)
父母가운晚竹덴업다,
異母어미무든바데,
소양나물(野菜)만하여서도,
우슴겨워못캐여서라,
천어머니모신바데,
넛나물이만하여서도,
눈물겨워못캐여서라.

◇

시내물은, 흘러가도,
山의絶壁, 그대로잇나,
나노래여, 山넘어가라,
나노래여, 물넘어가라,
山도물도, 지넘지말고,
요집올래, 지넘어가라.

◇

길갓집에, 桃實남심어,
쓰냐, 다냐, 맛보린서도, (맛보라는이는잇서도)
定해살이 하나도업다.

◇

山아, 山아, 知於島山아,
山上발로, 길이나난다. (山上의危險한대도길이
난다)

좁살만이, 사를메스면, (살수가잇스면)
남의집도, 사람이살라,
山비탈에도, 사람이, 산다,
물엮해도, 사람이산다,
사람못사를, 섬(島)잇스라.

◇

집에, 반초(草名)심으지말라,
반초입에, 물지는소리,
업는郎君발자취소리,
귀에淨淨어리워서라.

◇

창신안에 내 발은실여,

물에안즌 오리새발은,
적어아니 실여우리야.



前妻陳薄兩妾한놈아,
꽃바데다, 불지른놈아,
高牆靜裡씨예인놈아, (處女를誘惑시킨者를말함)
大川마다, 가운데, 들어,
去來일허, 달진밤새라.



서른야담半光에 죽어, (半光은半늬었다는말)
魂魄箱子엿헤다안저,
七星板도, 자모라서라. (男便이실혼여뵈에죽어
눈물로七星板을잡기다는말)



어머니, 하고, 짜르는아해,
그날살고, 초년날사니,
돌이아니돌아오더라.
(돌은 周年이며 여귀에 『아니』는語調며 아니
돌아온다는말이아니라 참 빨리 周年이돌아왔
다는뜻입니다)
스들넘고, 서른넘으니,
오던任도, 돌아서라. (『돌아서라』는 데돌아섯
다는말)



베짐 (船家)격시니 (아낙네)적실헤라 (하여라)
오리 (鷓)가리, 여올에, 안저, (磯)
베갈바람, 기다리더라.



世上男은애기내분가, (애기는 아들을말함)
손에요분바리려한다, (자식업다구自己를버리려
한다는말)
바리거든, 꽃(花)잇는새, 바리라,
바리거든, 님(葉)잇는새, 바리라.
꽃가불고, 님가부러야, (꽃과님히이올어야)
任의말로, 내어대가리,
任업서도, 날새히더라,
담업서도, 날새히더라,
任과담은, 업서도산다,
날난죽어, 닥바테무더, (楮田)
나우에란, 조히닥나진,
일천, 선배, 글발에, 놀게.



죽어서永離別은, 나라의大同이나,
살아서生離別은, 生草木에붙이탄다,
날란죽어, 나비(蝶)나되고,
널란죽어, 꽃치나되어,
꽃과나비니 한길로간다.
나비도사, 네, 날겐나비, (도사는語調, 네날겐,
네날에)
한날게만, 날(나)어나달라,
마음가고, 뜻가는섬(島)에,
날고아니, 가리여한다. (아니는語調, 가리여는
가갸다는말)



벧날날에, 어대, 비(雨)오리,
濟州瀛山드리운, 비스발.
설은情女눈물이어라,
눈물소(沼)에, 배(船)란세워,
한섬으로, 저으며가세.



벗의絶仲同甲의집에,
이내(나)밤에, 내, 놀레간다.



사랑에도, 아니온任이,
病重하다, 오리아하리,
冬至섯달, 기나긴 밤에,
삼은, 삼이 발가웃 이어, (이어노흔삼이 한발
반이라는 말)
삼장우장, 가져도 운다, (富者로살을意味함)
저는울고, 내아니올야,
씨누의야, 씨舉動말라,
너도가면, 씨闊에간다.
전치전치 네오래비 전치,
銀器뚝器박으로 쓴들,
요집 올래, 어대라오리,
묵은 칼에 도마상 거리, (도마우에칼을걸어노
코)
날로나情사리랴한다, (사리랴한다는칼로쓰리내
라는것)
사렘사렘, 생각올하니,
娥眉山이 미여라한다. (미여라한다는 미워한다
는말)



서울서울멀어라해도, (해도는하야도의縮音)
 가는 돌아 오라라한다. (가니돌아오다는말)
 저승길은, 朝飯前길이어,
 가는 울줄 물나라한다,
 서러 죽은 무덤이서여, (슬히죽은무덤)
 돌시나마 돌아오지말나, (돌시나마는周年이나
 마)

命도짧아 무덤이러라,
 얼굴, 조타 질겨도말나,
 나무간장, 석이러난다,
 술이 조타 질겨도말나,
 계간장을, 석이러한다,



서울가도, 三年에온다,
 江南가도, 三年에온다,
 요도三年몇날에오리. (요도는어느섬(島)입니다
 男便이 그섬에가서오래동안돌아오지아니함을
 기다리는노래)



사랑사랑남사랑날에,
 나무갈에 손으란베여,
 나무蔞에 苦生이러라,
 서른어머니 날베일적에,
 어느바다 베역을먹어, (베역은미역)
 바람일적, 질(波)일적마다,
 구울리며, 못사라서라.
 瀛海바다, 갓업은내몸, (瀛海는 濟州바다가타
 갓이업은나의몸)
 어느날, 은갓(漚)이라살이. (어느날에야幸福스
 럽게 살고)



눔흔남(나무)에 새(鳥)안져운들,
 어느새라, 우러니한다,
 새벽담은寂寂이운들,
 任相思에 못일어나라. (일어나지못한다는말)



서울물은銀석은물이어,
 내父母가다, 마서서라.



三年아니, 덤허난집에,

치마, 아니, 늘히러하리,
 가라, 오라, 시다리는, 씨집,
 돌아드린, 三年을사는,
 가라큰말도업서라한다,
 三年사자, 요, 씨집 가라,
 千年萬年내 사를집에,
 庭園으로, 길이나난다.



가마귀도, 어미야 운다.
 참새도사, 어미야 운다.
 우리兄弟 무삼罪있서,
 어머니, 말을물나라라하리,
 어머니關에 血肉이나,
 아바니關에 血肉이나,
 한關에 만血肉이시면,
 서문 나도 사라니한다. (사라니한다는산단의語
 調)



나무꽃과, 술나무 바람,
 소리나고, 사를매 업다, (사를매는살수가업다
 는말)
 씨앗이라, 싸우러가니, (씨앗은妻와妾이서로辱
 하는말)

가른바테, 매마춧가티,
 히웠듯이, 나안져서라,
 少女눈에, 저만한계집,
 任의눈에, 제아니들라,
 어느물에, 龍아니놀며,
 어느남(나무)에 새아니놀리,
 妾의房을 가만히보니,
 龍인듯이 나누어서라.



서울가도 날아온새야,
 江南가도 날아온새야,
 오날가져來日가져한들,
 靑대입에 濟이슬지어,
 날개저저 못날아서라.



서울이어, 연주러라,
 崔判官의 딸이러라,
 하도곱다 이르길래,
 한번보자 科擧보니,

엽다구서이르길래,
 두번보자科擧보니,
 알파다구이르길래,
 세번보자科擧보니,
 죽엇다구이르길래,
 네번보자科擧보니,
 處女합쌍 일리누어,
 龍그르다, 龍얼레기, (얼레기는얼에빗)
 새그르다, 새, 쳇밧에, (쳇밧은梳)
 쉬인대자, 총각머리,
 히울영청, 비섬서라,
 뒤엔보니, 쪽지屏風,
 새, 그리고, 벌그르다,
 압첸보니, 靑銅火爐,
 엽첸보니, 鴛鴦衾枕,
 處女합쌍, 자는房에,
 숨소리만, 길히난다.

.....

장刀칼을품에품고,
 자는듯이 조는듯이
 아바님도서울兩班,
 어머님도서울人氣,
 오라바님, 오라바님,
 거짓말을, 그리마오,
 우티兄弟, 죽겨들란,
 압바테도, 못지말고,
 똥바테도, 못지말아,
 꽃바테다, 무더다가,
 우리우에, 메꽃피여,
 나부합쌍, 나는것을,
 나벗인가, 알아주오.

.....

섯달이라, 그믐날에,
 片紙한장, 오랏더라,
 무슨片紙, 오랏더니,
 씨앗죽은, 片紙러라,
 울타, 그년, 잘죽엇다,
 무슨病에, 죽엇더냐,
 粉紅치마, 발길녀이,
 相思病에, 죽엇더라.

(「개벽」 제32호, 부록 pp. 39-48)

民謠자랑
 돌도엮는 寶物, 特色잇는 藝術

朝鮮은 메·나·리나라

露 雀

너희 부리가 엇더한 부리시냐.

아득한 빛날일이야, 엇지 다—이로 가리여 알
 수가 있스랴만은 그래도 半萬年의 기나긴 내력을
 가진거룩한 겨레이다.

「우리아가 엽분아가, 금쌀알기가티 귀한아가,
 신통방통 우리아가」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나에게
 던져주시든 수수땃단지엇지만은, 그래도 나를 얼
 싸안고 웃음과눈물을 반죽해 불으시든 자장노래
 이였다.

나는 지방도 어머니의 불으시든 그 보드러운음
 조를 휘둘쳐 늦기고있다. 내가 엇지하기로서니
 그것이야 설마 니줄수가 있스랴.

아모튼 우리가 어리여서는 귀한아기엇섯든지?
 朝鮮은 귀여운아기를 만히가졌섰다. 그아기들
 은모다 훌륭한보물을퓌만히 가졌섯지?. 자랑할
 만한 그보물? 이世上에는 돌도엮는 그보물!.

그러나 그보물은 감추어두었다. 아니 감추어두
 엇든것이안이라 몇百年스동안 긴난리 긴세월에,
 그만 아모도물을 흠구덩이속에다 느코파무더 이
 썩섯 그냥 내바려두엇섰다.

그러치만 파무더두었다고 썩어엮서질리는엮는
 보물이니, 그것은 사그리삭어 엮서지는것보다,
 금독겹이처럼무럭무럭자라나는, 거룩한보물인까
 닭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보물덩이를 안다. 남들은 모
 다몰라도……. 그러나 설사 남들이 그보물냄새를
 맛고차져가 제야모리 죽을힘을드리여서 그구덩이
 를 파뒤집어본다한들 불수나잇스며 알수나잇스며,
 더구나 어들길이 잇스랴. 다만 그것은 임자가잇
 는보물이며 쏘님자맛게는 도모지 알은체도안하는
 보물이니 우리만갓고 우리만절기고 우리만이자랑
 할 신통하고도 거룩한보물이다. 그보물은 흠속에
 파무쳐잇는 그동안에, 도리혀 쌍땃그로 썩이트고
 음이똥고 줄거리가 자라고 썩이피고 쏘 열매까지

도 매첫것만은 우리밖에 밍살스러운 그남들은 도 모지 그것을 물으는구나. 얼시고조타 요런캐판이 초어되잇stra.

인저는 朝鮮이 다—거지가 되엇더라도, 그보물만은어느새든지 거부차장일것이다. 쏘다른격정이 무어야. 그것을가진 우리의목숨은 살었다. 아직 도이러케 살어있다. 다른것은 모다 썩박을차게되 엿살사록, 그보물만은 우리를 두긋겨주조 귀여워 한다.

그러니 그보물은 과연 무엇이냐. 무엇이 그리 자랑꺼리가될만한 보물이다냐.

그것은 우리로서는 아조알기쉬운것이다. 싸고 도비싼보물이다. 「메나리」라하는보물! 한자로 쓰면 조선의민요 그것이란다.

그보물은 어느새 어느곳에서 생겨난것이나.

메나리는 글이안이다. 말도안이요쏘 시도안이다 이백성이 생기고 이나라가 이룩될새에 메나리도 저절로 썩아생긴것이니, 그저 그백성이 저절로 그려저럭 속깊히 간직해가진 거룩한 녀시일뿐이다.

사람은 환경이 있다. 사람은 사람만이 사는것이안이라, 그환경이라는 거가와 아울러서 한데산다. 그래서, 사람과사람 사람과환경은 서로서로 어느사이인지도물으게 낫니고 속깊은수작을 주고 밍고하나니, 그수작이 저절로 메나리라는 가락으로 되어바린다.

사람들의 고혼想像心과 劇의本能은, 저의환경을모다엮어어느 저의 한世界를 맨들어 놓는다. 암산도령아이리오너라, 뒤스내스각시 너도 가자, 날새인 눈짓이제밭으게 건너간다. 달콤한 니삭다 니가, 물으죽어진다 여괴에서 한낫의 이상하고도 그옥한 傳說이 저절로이록해지나니, 그山과 그물을擬人化해내일새에, 그가운데 싸여있는 잇기슬은 바위나 품석은 古木외저라도 한마치의 훌륭한 제비를 안이맛기여줄수가 업스며, 저괴에서 한바당의 神話世界가 그려저럭 이록해어우러진다. 그래서 느러진가락 제치는가락이 서로 얼크러져 한바당의 굶노리판이 열리어지나니, 登場한제비들은 제각금科白으로 몇마디의 메나리를 제멋껏 불리본다.

그土地와 그事件을 巧妙하게 엮어몽친 그노래

는, 김흔印像을 진이고, 뒤스世上 오늘날까지, 입으로입으로 불리 傳해나려왔다. 다만 입으로만 불리 傳承해이것은라, 묵고 오랜이만큼 그모양과 뜻이 밍겨어지고달려것슬른지는 물으나, 그래도 그속에 김희파무쳐있는 녀은 밍겨어널수가업스닛가 朝鮮이라는 한붉은쌍생이의 特色과異趣는 어느새든지 그대로 진이고잇스리라.

쏘 노래라는것은 입으로 불으는것이요. 글로짓는것이안이매, 구타여 글씨로 적어나려오지 못한 그것을그리 밍할까닭도업다 더구나 남달리 우리의 메나리는, 몇千代몇百代 우리祖上의 靈魂이 오래스동안 진이고각구어올새에, 그時代마다 그사람에게는 그대로 그것이 完成이되엿슬이니, 그줄거리가 시방도 한창 우리에게도 자라고 完成하며잇슬것이다. 무어그리, 글로 記錄하고, 말로밍기거리가야, 어려울것이 잇스라만은億萬古스동안을이나라 이사람에게로, 거쳐나려온 그것을 우리의 녀을, 녀드리를, 이世上 어느나라 무슨글로든지도모지 음기여쓸수가 업슬것이라는말이다.

우리나라에 다른藝術도 그리케 잘되고 만히든지는 물으나, 우리는 民謠國의백성이라고 자랑할만큼, 메나리를 꺾만히가졌다. 다른것은 다—어렵듯해 보기가어려워도, 메나리스속에서 살은 이나라백성의 韻律的生活歷史는 굵고 검은은線이 뿌러듯하게 永遠에서永遠까지 기리기리그리여있다.

사람들마다 임만 병긋하면 모다 노래다. 젊은이나 늙은이나 사내나 계집이나, 모다 저절로되는 그노래! 살어서나 죽어서나, 일할새나 쉬일새나, 허튼주정 잠고대, 푸념 녀드리, 에누다리 잔사설이, 모다 그대로 그옥한 메나리가락이안이면 무어나. 山에올러 「山타령」, 들에나려 「양구양친」, 「아리랑」타령은 두마치스장단, 늘어지고 설은것은 「류자락이」. 山에나 들에나 메나리뜻이 휘드러져 널리였다.

뫼가 우뚝하니 섯스니, 응징스리웁다. 물이 철철흐르니, 가만한눈물이 저절로 흐른다. 수수씩기속가티 고음고도 그옥한 이나라에, 바람이불어, 몸슬년의 그바람이 불어서, 썩은 피엿다가도 지고, 몸은 왓다가도 돌아선다. 제비는 오것만은 기리기는 가는구나. 백성들이 간다 사람들이 운다. 恨만흔 썩썩이는, 구슬픈울음을 운다.

울음을 울다. 무슨울음을 울었더냐. 무슨소리로 울었더냐. 씨가죽는 실음?, 피를뿜는 설음?, 안이다 그런것이안이다.

聞慶어(에) 세자년(세재는) 워 | ㄴ고개 | ㄴ
고 | (웬고개인고) 구비아구비아 눈물이 나게

우리는 간다. 고개를 넘는다. 구비아구비아 산길은 구비짓다. 구비아구비아 눈물도 구비친다. 아—, 이고개는 무슨몹술, 설음의 고개이나.

한울에는 별도만코 시내강변엔 돌도만타 恨도만타 설음도만타.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나타내 이기가 실다. 할말도 만껏만은 또한 할말도 없구나. 설음이 오거든 웃음으로 보내바리자. 사실이 있거든 메나리로 풀어바리자. 그러나 메나리 그것도 슬프기는 슬프구나. 실그러니 내려안즌가슴이 쓰다시 마음까지 알케되누나.

그러나 이것을 남들이야 알랴. 남들이야 잊지 그마의 마되 그구슬픈가락을 알수가잇스랴.

도라지캐러 간다고 요퐁계조퐁계하더니 총가
난군 무덤에 삼우제지내러 간단다
이것은 江原道 메나리

吉州明川 가는배장사야 첫닭이 운다고 가지
마소 닭이울던 정닭이나 맹상군의 인닭이라
이것은 尙鏡道 메나리

쓰나다나 된장떡지 같고이 사냥을 왜나갔습나
이것은 黃海道의 메나리이다. 가락이 길고 가
늘고무되일사록 저절로 서름도잇고 멋도잇나니,
그멋이라는것은 우리벉게는 늦길에도엄고 자랑할
이도엄다. 또 엘쎄 그것을(분해)설명할 필요도엄
나니, 쫓쫓내 아모보람도엄술것이요, 아모까닭도
엄는일이다. 다만 우리의 녀은 저절로 그것을 늦
기여알고잇스닛가.

이름잇는 소리 이름업는 소리 그모든소리가 우
리입에 울으날이는것만해도 그가지수수가 이로해
일수업시 만흐니 메나리로서는 우리의것이 온세
계에 가장 자랑할만치 풍부하거니와 한가지 가튼
소리로도 곳곳이 골수를떨어 그쫓과 그멋이달으
다. 「아리랑」도 서울「아리랑」 江原道 忠淸道 咸
鏡道 慶尙道「아리랑」이 달오고 「홍타령」도 서울
「홍타령」 嶺南「홍타령」이 달오고 「山염불」도 서

울시골이 갖지안코, 「난봉가」도 서울과 開城과
黃海道엇이달오고 「愁心歌」도 平壤「愁心歌」 忠北
「愁心歌」 黃道道엇이 달오고 갖지안은멋이 있
다. 무당의 「제석거리」는 十三道 곳곳 마다 다
갖지안타한다. 또한 古典劇그대로를 아직껏 진이
고나려온소리도 만흐니, 「沈淸傳」「春香傳」「興
夫傳」「목기傳」그런것은 말할것도 업거니와 중들
이 불오는 「넘불」「회심곡」한무당이 불오는 「푸
리」나 「처리」, 장사돌뱅이의 「장타령」, 제주바치
의 「산뽕도감」「복두작시」, 무엇무엇그것도 헤일
수업슬만치 찍만타. 가슴이 날뛰는 嶺南의 「쾌지
나 친친나—너」도 조타만을 씨가 녹고 너시 쓴어
질듯한 平安道「배다라기」도 그리웁구나. 화투사
불 빚해 붉은불을 확근거리며 선벼습이나 솟새시
가 밤을새이여보는 黃海道「배뱅이웃」은 얼마나
절거운일이냐. 平安道「다리웃」의 「아미타불」도
또한 한가담 눈물이었다. 김매는 「기심노래」 배
매는 「배틀歌」도 조치안은것이 업스며 南峽의 「山
有花」北峽의 「놀람사거리」도 震城에서는 가장오
래인소리로 그음조만으로도 우리의녀을 힘있게
흐늘거련다.

메나리는 특별히 잘되고 못된것도 잇슬까닭이
업스니 그것은 속임임은 우리의녀 녀의울리는소리
그대로이닛가.

우리의 메나리는 구박을바더왔다. 어느놈이 그
런몹술것을하얏느냐. 우리는 몇 百年사동안 漢學
이라는 그 거북하고도 야릇한 살매가 들리어 우
리의 것을 우리의손으로 스스로 푸대접해왔다.
아— 야속한판시만 맞든 우리의메나리는 그동안
얼마나 혼자 외사람은길 어두운거리로 헤매이며
속김흔울음을 울었겠느냐.

그러나 할수업다. 우리의녀은 우리의녀 그대로
인것을 잊지하겠니. 메나리가 우리와함의 낫슬바
에 우리가 살사동안까지는 늘 우리와가티 잇스리
니, 이나라가 뒤죽박죽이되며 집신을 머리에 니
고, 갓을 쟁문이에 차고단이는世上이 온다할지라
도, 메나리만은 그世上 그대로 업서지안코잇슬
것이다. 아모리 무되고 어지러워진神經이라도 우
리는 우리의메나리를 들을쎄에, 저절로 늦기는
것이있다. 아모나 마음이 통하고 늦김이갔다. 조
타사 소리가 저절로난다. 대체 조타는 그것이 무

었이나. 우리의 마음의 거문고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저절로 울려지는 그 까닭이다.

우리는 메나리시나라 백성이다. 메나리시나라로도다가자. 내 것이 안이면 모다 빌어온 것뿐이다.

요사이 혼한 「양시조」, 서투른 諺文風月, 도막도막 잘터놓는 新詩타령, 그것은 다—무엇이나. 되지도 못하고 어색스러운 앵도장사를 일부러 애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멋의 제국으로나 놀어라. 앵도장사란 무엇인지야느냐, 바다다 판다는 말이다. 洋가가에서 일부터 肉爛부스럭이를 사다먹고 팔머리를 얹어 長髮客들이 된다는 말이다.

넉시야 넉시로다. 이넉시 무슨넉? (웃)

(別乾坤 제 3 권 제 12. 13 합호, pp. 170-174)

朝鮮民謠의 時數

安 自 山

(一)

民謠라하는것은 風謠 또는 俗謠라고도 通稱하는 것이니 民謠를 他歌에 견주면 純朴한 風味가 있는 것으로서 音樂의 始根이요 文學의 址臺라 古人의 界說에 依하면 韓詩章句에 는 써하되 章句인 者를 歌章句인 者를 謠라하고 爾雅에 는 徒歌即樂器로 伴奏치 안는 것을 謠라하였다 此兩隻의 說이 다無妨한 斟酌인데 다시 適切히 말해보면 謠라하는것은 非藝術한 民間俗套의 歌로서 純情詩의 始根으로 發生한 것이니 이는 特히 文字로 題記치 안코 音樂의 力을 資賴하야 비로소 生命을 잇게 된 것이다.

그런즉 民謠의 發生은 眞局한 人間에서 人生의 天然의 觀察과 感情을 口頭에 藉하야 客觀的으로 吐泄한 것일세 여기 있는 材料는 奇巧한 裝裝을 내지 안코 天真爛漫의 情生活을 眞率로 寫出한 것이라 그리대 民謠는 國民生活의 情表로서 人民全體의 心性을 假飾없이 表顯한 것이니라.

(二)

大體 民謠는 本는 부더 文蹟으로 傳屬함이 업는 것이라 故로 古歌詞의 遺傳되지 못함은 不言可知라 故로 今日에 안저시 古代의 民謠를 論難하기는 壯히 未學한 일이라 할지라 然이나 古人의 文集을 查實하던 其

中에 著者當代에 流行하던 俗謠를 漢詩로 譯作하야 둔 것이 種種 들켜 나니 陶隱集 止止堂集 嘯集 덕옥耳溪集가운데 있는 北塞雜謠四十餘篇은 咸鏡道 民謠를 收集한나 貴한 參考거리가 된다 나는 이의 三年前에 藝文十八年一號二號에 就하야 若干研究를 發表한 일이 잇섯고 其後에도 連放 講磨해 본 일 잇는 지라 아직 까지도 透徹한 定論을 지어 말을 하기 難堪하나 既往收聚한 材料를 가지고 其內脉을 推究하야 보면 大綱其苗脉을 據得할지라.

그 發生한 痕跡은 二方面으로 보인다 一은 自然의 生活感으로나 온 것이라 吾人은 口音中에 樂律이 自在한데 日常事物에 接觸하야 發動하는 觀念을 口調에 合하야 外에 發揮하면 그게 即 歌謠音樂이 되는지라 그런데 其事物에 껴아치 나오는 觀念은 各其營營逐逐하는 勞動에 조차 發現하니 即山中에는 牧畜生活 海邊에는 漁泳生活 農, 工, 商等 各其生業에 依하야 其材料를 삼은지라.

田家謠

田家二月啼布穀
泥融無塊田可耕
老翁秉耒筋力強
家婦布衫無完裳
春穗漸黃稻新緣
里閭相逢無異說
稼穡可樂還可憐
待得有年議婚姻
田家家風俗眞
袖中已草歸田詩

伽川竹枝曲

江上孤舟一葉浮
此身堪嘆不如鳥
睡起開窓貯愁立
風動暗香來擁鼻

四佳集

南村北村雨新足
原頭叱叱驅犢聲
大兒小兒行跟○
日午野餉芹蕨香
滿眼新綠飛雪白
勛爾辛勤事稼穡
十年不見大有年
攜壺挈肉相醉眠
不比壩斷爭利人
他時爭席知我誰

止止堂集

飛鳴有信兩沙鳴
獨倚疏樓月再鉤
寒梅一樹報春回
却疑郎君錦囊來

그러듯 民謠는 形形色色으로 비져나나 그 情緒를 描寫한 內容은 天然한 性情을 眞率로 攪破할새 潛然히 人生의 苦楚를 歎息하는 悲曲도 잇스며 怡然히 自然의 恩寵을 喜悅하는 平和調曲도 잇더라 二는 世情感으로나 온 것이라 人間의 活動은 時勢의 變遷과 共同行色에 依하야 衝動的 感懷가 許多히 나오니 此事情에 因하야 發生한 俗謠는 智力의 分子가 잇스며 事實의 標題가 또한 不少하다 其性質은 勿論 喜悲가 俱存할 지오 其文章은 或者의 創作으로서 一時에 流行할

도잇나니 이런것은民志와時代의材料됨이多般이다.

山中謠

我聞海中賊
其初夜登岸
中焉驕不退
漸與官軍敢相敵
我時如聞異世事
年來陵谷忽易處
赤足走上千仞崖
官軍燒船激其怒
閩中女兒與卒徒
我幸竄伏榛灌中
忍飢忍若日復日
呼冤三十又一年
奈何今日亦及我
反而思之賞我命
天於人兮無厚薄
賜之太平或者近

呼耶歌
呼耶呼耶在南北
千人輸一木
華山之石拔幾盡
石盡山秃寧可虞
民可惜誰能識惡卒
朝食未夕未浪
猶唱呼耶口吻燥
聲衰力盡一僵仆
我願天公生大材
作我堂堂大厦之柱石
不爲萬姓瘼

木弓

木弓兮蘆矢
狹袖兮甌笠
嗟我邊城兒
若得選人親騎衛

一時的으로나온俗謠는 或間兒童輩의 無意識한口頭로到處에傳播됨도잇는지라 이런童謠의 流行됨에對하여는 爲政者의幻想으로는 勿된吉凶의神祕的符徵으로觀測함이一手나 文獻備考卷十一에잇는童謠集이 그런例套러라.

(三)

그런데第一方面으로發生한것은 民俗間에流行하

牧隱集

時時攻水村
鼠竊踰墻垣
白晝行平原
清辰鼓譟俄黃昏
寢早起遲弄兒孫
賊勢猖獗將併吞
藤棘石角飛猴猿
肆毒烈火如俱焚
聯首就戮餘何言
僅保性命無留存
始知濱海多呼冤
廟堂久矣憂黎元
告焉直欲排天○
久安必危亨必屯
雖有久速均其恩
我今稽顙呼乾坤

楊軒集

呼耶之聲何時息
萬一轉一石
白雲之木斫幾秃
填坑什谷民可惜
捶督如電擊
可憐腰間空垂囊
口燥喉啞聲難作
塵飛澀血萬一足
不置山林置君側
不勞萬姓力
莫使呼耶在山谷

耳溪集

江邊兮習射
長楸兮走馬
努力莫少惰
萬戶權官無不可

다가 七零八落으로或亡或傳한바 藝術上價値가別樣업는것이오第二方面으로나온것은 樂壇에採用되야 藝術化한曲調가만흐니 古昔의音樂이란것은 居之半鄉村의民謠를 採用한것이라 新羅音樂으로는

內 知 日上郡樂
白 實 坤梁郡樂
德 思 內 河西郡樂
石南思內 同伐郡樂
祀 中 北隈郡樂

이것들은新羅宮中樂이된바 其本은鄕人喜樂之所由作이라한것이라(三國史記第三十二參照) 高句麗歌로高麗에遺傳된것은

延 陽 延山府人之作

가튼것이오 百濟것은

無等山 光州民의謠

가튼것이오 高麗것은

楊 州 漢陽府民의歌

長 湍 長湍民의歌

定 山 定山民의歌

沙里花 人民이賦稅의過酷을冤呼한것

松 山 松山民의歌

等諸歌曲은 本是鄕村人民의俗謠로서 樂界의名曲으로되야 흥농한價値가잇든것이라 그런즉古代人의民謠에 對한觀念은三條가잇스니 一은神祕的으로보는것 二는野鄙한聲調로보는 것三은 眞情의所出로치는것이라.

(四)

今日에잇서는 民謠가盛豐히流行하며 學界에서는그를重要視하야 廉探하는時色이甚하나니 故로雜誌等에는선이써케 鄕曲의俗歌를揭載하며 一般宴會의餘興에는謠曲을唱함이恒茶飯이라 觀컨대今日의民謠發達의源因은 三條의논치가되는듯하다 一은時代의民心이擾亂하야 高尚한娛樂을取할줄모른다 加于에音樂文學은自來로專門의이든것인바 一般社會에서는普通으로알수업든길이라 故로오직村落에서自給自足하야 스스로興行하든歌樂을取할맛게업스며 新進人士는前日의藝術에는聞見이업서巽方이되매 더퍼노코改舊革新의思想이잇는지라 그런여러가지事情으로因하야 民謠가와작盛行한것이라 二는自然主義와平等思想이 것드려輸入되는바

람에 人心은모도그리로趨向되야體面과高等의事는
도트리假飾虛僞는壓迫의으로對視하는지라 故로
純直이오本心이오平凡한것을同情하매 文學及歌樂
도庶民共通의謠曲을 만드려耽耽하는貌樣이라三
은愛本心으로우리나와民謠를貴愛하는時色이있다
前日의文學이란것은 全히漢文을爲主하고 正作朝
鮮語朝鮮文으로된것은自鄙自棄하야 고만無文學의
民族이되었는지라年來史籍을들쳐볼진대 漢文에對
隻하는 讐仇心이안이날수없다 高麗史樂志에보면
朝鮮語로된것은鄙俚타하야 抹殺한글발이두뿔하며
成宗實錄十九年條 李世佐の上啓에도

御正殿臨群臣時用俚語於事體何如…… 今妓工粗
於積習舍正樂而好淫樂甚爲未便一應俚語請皆勿
習라 하얏스니 今日朝鮮文學朝鮮音樂이衰殘한것
은彼漢文의中毒이라 是以로吾人은我民族の本精神
되는文學을爲重함이可하다 이런思想은學民族一致
로되는結果 民謠의聲勢는크게發興하게된지라.

싸는그러하다 우리는日久月深에매저잇는漢文奴
를贖良도할지오 新文化를開創함에就하야 因勢上
으로民風을廉探하기는 歌謠를收取함이가장緊할지
라 더욱近者의文藝家は前日漢學者버릇으로 舊文
學을蔑視하고 新文만을主하야 덧음시外國文套에
同化하야가는爻象이라 이것들을根本의으로頓整하
자면 未嘗不民謠를詳審함이單罷榜이라할지라 그
레서나도民謠를講考하는生意를 마지안이하는바라
그러나余는時方 그런感情을품고말하는것보다거시
키冷情한態度로써研究를試驗하야 民謠의價値를
學術的으로엿보고자하는바라.

[五]

大關節現行하는民謠의數는얼마나되나노 各色
의雜同散異를모도물면 限量을못차리되大頭腦만
잡드라도 一端百의數로만되지안는다(其曲譜는李
尙俊氏의發行이잇스매 其李氏의功은多大하다하노
라)

農夫打令 방아打令 장打令 興打令
山打令 물打令 개打令 새打令

等은 아모라도日常熟聞하는게라 그런데于先其接
尾名詞인打令二字가무엇인지 이것을알고싶다 自
來歌謠를論講한者이稀疎하고 昭詳한語彙가없음
으로 其語源과其出處를알기가索莫하다 거기키靈

山會相曲이란樂曲에 打令이란樂節이잇지마는 여
기다가證據대기는너무淺近하다 그러나이것이樂
曲名과關係된은 이로써斟酌기容易하다 故로次漸
次漸古人の樂說을뒤져보면 朱子語類卷九十三

唐人俗舞謂之打令其狀有四曰招曰搖曰送其一紀
不得蓋 招則邀之意搖則搖手呼喚之意送者送酒之
意云云라하고 그후 카라經世大訓에도亦如是이말
이적혀잇스니 이朱熹의記錄에憑準하면 打令은即
唐人民俗의舞蹈曲名이分明하다 故로打令의由來는
必是高麗登內에唐의舞樂을만히輸入하든次 其時에
音樂과眼同하야 其名詞까지輸入된듯斟酌하노라.

於其次에民謠의形式을말할진대 音調의數律은
每樣四四調로서八字를一句로構成한지라 이四四調
는古來歌詩의 元套丹骨로은것이니 그의그루는生
理上呼吸의脈搏을準의하야 自然한強弱을되푸리
繰返한것이니 이것이第一純粹하게나온民謠의本色
이라할지라 文章의體裁는二種으로되니 一은長篇
으로된것이오 他一은後廉을入하야「코리쓰」를作
하니이는社交의唱和로된것이라 以後廉은美妙한
對句와奇絶한比喻도잇스되 每樣感動詞를反覆의
으로 用함이通例니 이는原始的의修飾法으로서 自然한
發達을作한것이라.

[六]

第三次詩想으로볼진대 一般民謠의內脈은 娛樂
의으로中心하다 故로男女의情事 戲弄의才談等이
車載斗量이라이는얼핏斟酌하면 淫蕩放逸의民風
이잇게서리보인다 그러나其實은판관이니 人民은
아모利慾업시自然生活의餘暇를乘하야 自樂의安
慰를求함에서發生한口氣라하노라.

第四次로音樂의表白 即民謠의聲調는잇더하노
이는通히悲哀의韻을 띄여잇는바 그理由는去番에
(別乾坤前番號)說破한것이라 即悲哀調인裏許
는大體佛敎의影響으로된것이라하얏스되 한번다
시그悲哀調의結晶을分釋하면 階級政治의被壓迫
되던反影의分子도비어잇는지라 本來宮廷音樂은
樂慾의으로되매 先王의建國해준功德을讚頌하고
(龍飛御天歌類) 自己의威信을爲하야壯嚴함을治裝
하야 音樂을形式的의道德의으로團束했지만은 下
民은千年間屈服하야 向上發達을피치못하매 默
새긴白活 本能的한反感이 不言之中에發動하야

그것이一般音調에 골아나오니 이런理由는 참말로 歎后하게 칠것이 안이라하는바로다.

이때문에 朝鮮民謠에는愛國에關한語調라곤 一言半詞가없다 伊太利歌謠도그러치만 朝鮮은上에 말한理由로因하여더욱볼것없다 勿論한關係도있지만은 階級政治의일미가重要한頃이러라 時方新舊文化가 갈마드는틈에있서 民謠도新氣運이나스 할고 더욱層生疊出한感情의暴發은새民謠를產出케要代가된지라 效에開闢社編輯자는 工力을드려 이것을注意할새 벌써千餘篇의舊民謠를收集하여新研究에滲着한다하니 將次그의功獻이적지안이 할줄로斟酌하노라.

(「別乾坤」 제 5 권 제 2 호, pp. 144-148)

나와 大 筚

金 桂 善

나는 明治二十四年 舊曆으로 三月三日 金德花의 長男으로 漢陽에 出生하였습니다. 父親의 代만하더라도 그렇지않은 家勢가 내가 世上에 나오기 前後하여는 매우 零落하여 寒微하기 짝이없는 境況이었습니다.

當時의 幼少들이 누구나 다 그러하듯이 書堂에 千字文을 끼고 드나들것이었으나, 貧乏하기 마련없는 집안의經濟는 그것나마 오래 지탱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리다고는 하여도, 허는 所業없이 편둥편둥 집안에 들어박혀 作亂이나치고 노는것이 안되었든지, 이웃에 사는 父親의 親知에 그때 兼內吹에 出仕하던 韓某라는 어른이, 마춤 營門에서 樂手 見習을 十八名이나 募集하니 이機會에 한번 應하여봄이 어떠냐고 慫慂하는 것이었습니다.

칠없는 自己야 別다른 生覺을 가져볼 나이도 아니기야 하였지만, 그렇게 큰 期待도 없는代身, 무어 그리 싫은마음도 없을것이나, 집안에서는 窘塞한 살림에 보탬이라도 있을까 그한가지 바램에, 十四歲 少年은 內吹都家大廳에 적은 머리를 조아린것이었습니다.

까다로운 考試가 있는것도 아니요, 應募者가 過多한것도 아니라서 內營兼內吹에는 쉽사리 뽑

힐수가 있었습니다.

暫間 內吹가 무엇인가를 말승디리면, 서울안 六營門에는 다各其 그에附屬한 吹樂隊가 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오늘의軍隊와 恰似한것입니다. 그러든 여섯營門의 內吹들이 모다 營門閉鎖와 함께 解散되고 그數조차도 무척 줄어들어 數十의 樂手が 僅僅 內營에 附屬하여 그內營兼內吹만이 殘存한 것이었습니다. 그內營兼內吹都實은 只今鍾路 一丁目 角田洋服店뒤 예전 相思洞에 있었습니다.

그때 自己가 修業해야할 樂器가 大筚으로 先生에게서 指示되어 爾他四十年이나 일은것입니다.

大筚이 新羅三竹의 하나로 中筚, 小筚이 또한 自在한것은 아시는 일이지만, 大筚을 專攻한다 하여도, 첫날부터 大筚에 着手함이 아니요, 그보다 尺長도 若干 짧르고 指孔사이도 매우 가까운 中筚을 얼마 能熟한 뒤에 비로소 배우는것인데 自己도 처음은 中筚을 이겼습니다.

이와 前後하여 나는 宮內府掌樂院에 出仕하시던 當代 大筚으로는 比肩할이없는 最高峰 崔鶴鳳先生에게 個人教授를 받는 便宜를 얻게 되었습니다.

배우는이에게있어 어진 좋은 스승을 만나는것 같이 즐겁고 幸福한일이 없는것인데, 斯界에 出發에서부터 이렇듯 恩惠받었다는것은 眞實로 感謝로운 일이라고아니할수없습니다.

그보다도 여러가지 事情으로 內營의 兼內吹까지도 閉門의 悲境에 일으러 入所하여 二年만에 罷해버렸는데 自己와 몇몇만이 運 좋게 掌樂院에 就職하게된것은 이또한 보이지않는 힘의 加護라고 믿을수밖에 없습니다. 明治三十九年 十一月, 音樂에 從事하라이면 누구나 물어보는 宮內府掌樂院에 自己도 사람과 어깨를 겨고 드나들게되든 때의 스물도못된 十六歲少年의 得意는 只今 도리켜 生覺해도 즐거운것입니다.

더욱 尊敬하는 스승 崔鶴鳳先生 門下에서 一意 一管大筚을 研鑽하게되는 幸福을 갖게된것은 어떻게 큰 기쁨이였겠습니까.

嫉視, 反目, 派閥도있고하여 崔鶴鳳先生의 評判은 그의 大筚의技와는 매우 距離가 있었으나 弟子들에 對하는 先生은 어디까지 嚴格하시고 親切하신 尊敬할 어른이었습니다.

門下에는 나以外에도 여럿이 先生의教授를 입

있지만 中에도 自己는 누구보다도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그에따라 同僚의 미움도 免할수 없는것은 自然의理라고 말할수 있겠습니다.

그것도 先生은 偏愛라기보다, 쉬지않고, 하려고 努力하는 나의 根氣있는 熱誠을 조금 보아주신 것이라고 生覺하고 조금도 慢心을 갖지 않았습시다.

恩師 崔鶴鳳先生에 對한 이야기는 自己에게 있어 modo 生소한 記憶이요. 거의 肉親의情까지 푸근한것이나, 다른날로 미루고 樂器 「大箏」의 解說을 조금 하여보려고 합니다.

編輯하는이의 特別한 請이기도하여 물리치지못하고 써보는것이나 樂器大箏의 이야기는 나보다는 몇倍 高名하신 先生이 많을터인데 其實, 한혀잡것없는 그것의 演奏者에 不過하는 自己에게 말기시는 眞意는 자못 不可解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記錄하여보면 大箏은 新羅 神文王時의 創作으로 傳하는것입니다. 神文王은 新羅第三十一代 王이신데 在位十一, 二年인가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대로 記錄하여보면 大箏은 新羅 神文王時의 創作으로 傳하는것입니다. 神文王은 新羅第三十一代 王이신데 在位十一, 二年인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大箏을 神文王代의 製作이라고하는것은 新羅古記에 傳한다는 아래의 傳說에서 오는것입니다.

바로 神文王時에, 東海 한가운데, 忽然 小山이 生起하였는데 形狀은 龜頭와 恰似하드랍니다. 그 후에 一等竹이 났는데 晝間에는 난호여 돌이되고, 夜間에는 습야야 하나가 되는故로 王이 奇異하다 하고 사람으로하여금 잘르게하여 그것으로 笛을 만들어 이름도 萬波息笛이라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傳說이 비록 있으나 怪奇하여 可히 取하기 어렵다는것을 羅古記사사가 附言하였습니다.

이것으로써보면 大箏을 우의 虛荒하다할 怪談에 比그러매여 神文王時에 創作된것이라고 傳하는것은 한쪽으로 생각하여 덜 符合하는것이나 더 確實한 憑據도 모자라는 이증으론 于先 그런대로 滿足할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思惟하는것은 自己의 學究的으

로는 매우 淺薄한 見解일뿐이요, 이런 대문은 달리 東洋音樂史의 權威에게 辭讓할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大箏을 筆頭로하는 三竹이 新羅에서 起源하여 高麗, 李朝, 現代 이렇게 오늘까지 傳來한 것만은 疑心할수없는 歷歷한 事實이겠습니다.

翰林別曲인가하는 歌詞에, 管絃 자즈러진 音樂의 陶醉境을 그린 대목에 最終句를

(一枝紅의 빛근笛入吹, 一枝紅의 빛근笛入吹, 過夜景기어떠하니잇고)

하였습니다.

高麗朝에서도 大箏이 어떻게 重要한 樂器이었다는것을 잘 說明하여주는것으로 注目할것이 있습니다.

李朝에 있어서도 第七代王 世祖大王이 伽倻琴과 아울러 大箏을 善吹하셨다는것은 너무도 大箏의 眞價를 빛내는것입니다.

나의스승 崔鶴鳳先生의 一敵國으로 名箏 鄭若大先生이 계시는데 鄭先生은 그 第一步부터 사람과 相異하여 每樣仁旺山登山하야 大箏을 吹奏하기 무릇 十年에 大成한 非凡한 어른이었습니다.

흔히 大箏에 善手되는 別다른 秘傳이라도 있는 것처럼, 自己에게도 그善吹하는 妙諦의 指示를 바라는 분이 없지도않은데 나는 그럴때마다 많이 부는道理以外 單아무것도 없다고 일몰니다.

世評에 쫓으던 自己도 무척 天稟에 得을하고있는 모양인데 아마리 도리켜 생각해도 내게 音樂의 特性이 남유달리 지녔은것은 풀어낼수없습니다.

내세운다면, 누가 못더라도 가볍게 선선히 對答할수 있는것은, 그리고 소리치고 자랑이라도 할것이 있다면 남의몫(倍), 아니 몇十倍, 더 많이 大箏을 불었다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밖에 아마것도 없습니다.

꿈에라도 내가 남에게 뛰여날, 타고난 特別한 資質이 있었다고는 마음도 먹어보지않았습니다.

「난 才分이없으니까.」 「音樂은 藝術이니까 그런素質이라야지.」

눈물나는 精進도없이 諦念해 버리고, 凡俗한 境界에 주저앉아 妥協해버리는 젊은 樂人들의 무척 方便한 態度에 파닥디리면, 時勢이니까 어찌는수없지 하다가도 매우 안타깝니다.

音樂에 大成하는 條件으로 生活의 裕餘를 울부

짓고, 그럼으로써 비로소 그길에 敢然히 邁進할 수가 있을듯이 慷慨하는 後進도 있습니다.

自負하는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걸어온길은, 오늘의 우리의 後輩가 걷는길 數百倍的 苦難의 길이었습니다.

살림의 窮乏은 쳐들지 말고라도, 그 蔑視 冷待 汚辱의 環境에서 優遇라고는 말할수 없더라도 제법 安定한 自己의 現今位置에 想到할때 참는것만이 貴한것이로구나하고 깨달은것같이 느끼는것은 제법 스러운 心境의 하나입니다.

管樂은 四十이 命數이니, 五十이 그러니하고 大琴도 四, 五十이던, 불일 다본듯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분이 있으나 그것은 그사람의 마음먹기에 있지않은가하고 싶습니다.

그야, 體質과 먼저 議論한後가아니면 가볍게 斷定하기 어려우나 나의 信條는 볼수있을때까지는 大琴놀기를 놓지않으리라하고 있습니다.

輕하달수없는 特病의 神經痛이 늘 걱정이나 當分은 매우 健康합니다.

(「朝光」 제 7 권 4호, pp. 258-262)

나의 玄琴

張 寅 湜

玄琴은 至今으로부터 約一千五百年前, 高句麗時에 王山岳의 創作한것으로 爾來宮中祭禮及宴禮에 使用되고있는 樂器입니다.

이 樂器를 創作한 動機가 傳說로 傳해지는데 이것을 紹介하여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新羅古記에 傳하는것인데 昔나라에서 七絃琴을 高句麗에 보냈는데, 우리 高句麗에서는 그것이 樂器인것만은 짐작하나 그 聲音이라던 演奏하는 法은 全然 解得알道理가없어 賞金을걸고 能히 그 樂器의 音調를알고 演奏할수있는者를 隣나라에 廣布하게 되었던답니다.

그때 第二相 王山岳이 그 本樣을 그대로두고 그製方과 形式을 改良하여 오늘의 玄琴을 製作하고 다시 그樂器에 適當한曲을 百餘曲이나지어 演奏하였더니 그 소리가 매우 美妙斷絶하며 玄鶴이 날려와 춤을추었다는것입니다. 까닭에 그일흔을

玄鶴琴이라하였는데 後에는 中間의 鶴字는略하여 但只 玄琴이라하여 오늘에일것입니다.

이제 좀더 玄琴이 어떠한 曲折을가주고 遺來하였는가를 이야기하여보겠습니다. 王山岳이 創作하여 얼마가 지난後 新羅사람의 王實高가 地理由 雲上院에 들어가 學琴 五十年에 또한 作曲까지 三十餘曲이나하여 得이라는 그弟子에게 傳하고 得은 이를 또 貴金先生에 傳했는데 이 貴金先生亦是 地理山에 들어가 나오지않음으로 羅王이 琴道의 斷絶을 크게 憂慮하여 伊凌允興에게 南原公事를 맡기고 貴金先生의 音을 傳得하려하였습니다.

允興이 到官하야 安長, 淸長이라는 聰明少年二人을 簡擇하야 山中에 들어가 배호게하니 先生이 거의 傳授하되 그隱微한것은 傳치않거늘 允興이 그夫人과더부러 貴金先生에게 나아가

「吾王이 나를 南原에 보내심은 先生의 神技를 傳하자 하심이었는데 于今三年에 이르도록 先生이 秘藏하시고 傳하지않으시니 돌아가 무어라 復命할수있겠습니까.」

하고 允興은 捧酒하고 그夫人은 盞을들여 禮를精誠을 다했더니 先生이 비로소 飄風等三曲을 傳했습니다.

그後에 安長은 그아들 克相, 克宗에게 傳하고 克宗은 다시 七曲을 作曲하였고 克宗以後에는 玄琴으로서 業을삼는者가 一二人에 止치지아니하였습니다.

玄琴에는 두가지 調가있는데 그하나는 平調요, 그하나는 羽調인데 모두 百八十七曲이요 그餘聲遺曲은 流傳된것이 얼마있는外에는 散逸되었다 합니다.

王實高의 作曲한 三十曲은 아래와 같습니다.

上院曲一 中院曲一 下院曲一 南海曲二 倚品曲一 老人曲七 竹庵曲二 玄合曲一 春朝曲一 秋夕曲一 吾沙息曲 鶯鶯曲一 遠帖曲六 比目曲一 八寶相曲一 幽谷淸聲曲 降天聲曲一

그以後 玄琴의 曲調로서 異色인것을 하나 말슴하여 보겠습니다.

新羅慈悲王時 어떠한사람이 甚히 가난하야 衣服의 百結이懸鶉과같음으로 사람들이 百結先生이라 불렀습니다 이百結先生은 恒常 玄琴을 좋아하야 喜, 怒, 哀, 歡을 玄琴으로서 表現하드랍니다.

어느해 歲暮의일인데 이웃에서 떡방아찧는소리를 들은 그의婦人이 歎息하면서 하는말이 「우리는 무얼로 過歲하여야 옳은가요」하니 先生이 對答하여일으되 生死는命이었고 富貴도하날에있는것이니 運이오면 받을것이오, 運이가면 道理가 없는 것이니 무어 그리傷心할것이있오」하고 玄琴으로서 방아찧는소리를 描寫하여 慰安하였더니 이말이 世上에傳하여 이樂을 雜樂이라 하였습니니다.

玄琴의製度는 前面은 桐木으로쓰고 桐木에서도 石上桐이 最好나 石上桐이 아니라도 또한 無妨합니다. 後面은 栗木을使用합니다.

絃數가 六絃으로 伽椰琴이나 그런거와같이 雁足を 쓰지않고 이것은 十六의裸를 固定한 位置에 붙였습니다.

玄琴의 特徵은 한두가지가 아니라서 收擧할거들이없으나, 그中에도 特出한것으로 그날분 音量을 말할수있고, 이樂器처럼, 演技者의 技術을 無限大히 發揮할수있는것등을 들수있습니다.

玄琴의 紹介가 너무 支離한感이없지않으나, 編輯者의 주신 「나의玄琴」대로, 아주 一家를 일었다고 自信할수 없는 나를 長遠히 쓴다는것도 그닥지 내키지않어 玄琴의 紹介가 길어졌습니다.

다음은 아주 簡單히 自己와 玄琴의 因緣이야기를 記錄하여보겠습니다.

自己가 普成高等普通學校를 中途退學하고 李王職雅樂部에 入部한것은 大正十一年이였다 봅니다.

當時의 雅樂部는 오늘과달리 그職員數또한도 百數十을 헤였고, 雅樂部長에는 胡明完壁先生 雅樂師에는 모다 뒷날 雅樂部長을 歷任한 金齋濟, 成和鎭先生이계셨고, 雅樂手長陣도 崔淳永, 劉儀錫, 安德秀, 李壽卿氏等 濟濟한것이였습니다.

雅樂部の機構란 그런것도, 次층, 舊態를 벗고, 新時代에 適應하여 多方面으로 廢棄와建設이 無常한 일은바 過渡期인것이였습니다.

世襲으로 職員의子弟가 卒業을있든것을비로소 一般에서 學生을 公募하여 後繼者를 養成하기 第二期生에 自己는 加擔하였습니니다.

처음 第一, 第二年은 一般이 다함께 修得할 樂科를 共通히 배우고, 第三年서부터 專攻別로 特殊한 樂器部門에 들어가게 되는 制度가있는데, 自己는 同期에서는 單獨히 玄琴에 專攻하게되었습

니다.

一技一藝에 能秀하라면 그苦心이 큰것은 말할 것까지도 없는일이지만 別다른音樂의 天分이있는 것도아님 自己의일이라, 選境이 불것이 없었은듯 記憶되나, 그럼에도不拘하고 나를 教授하여주신 梧堂 成和鎭先生은 여간 懇篤하고 肝囑하시게 傳授하시는데 아니었습니다. 自己의 오늘이있게한 恩師이신것으로 自己의平生에는 잊을수없는 분이 습니다.

梧堂 成和鎭先生은, 무어 玄琴만에 能通하시는데 아니요 絃樂器全般에 그造詣가 놀나우신 분이 나, 그래도 玄樂은 先生의 專攻樂器인지라, 무엇보다도 卓越하신 技藝의하나이였습니다.

그簡嚴하고 神妙한彈法은 王山岳以後 著出한 玄琴의 演奏家에 列하여 遜色이없으시겠다 느껴졌습니다.

다음으로 松史 李壽卿先生의 教導亦是自己는 어느때고 잊을수없는것입니다. 梧堂先生의 簡潔하고 雅致있는 彈法과는 또한 달러 松史先生의 琴法은 壯重하고 豪放하여 좋은 對照이였습니다.

李壽卿先生은 重光之曲(靈山會相)에 더욱長하신데 이것은 梧堂先生도, 늘 重光之曲은 松史先生의 彈法을 留心하라 일으키는것이였습니다.

自己는 百樂의 으뜸되는 玄琴을 專攻하게되어 一方畏懼하고도 內心得意가 없지않은데다, 더욱 그스승에있어서, 이토록 훌륭하신 先生에 學琴하게된것을 자랑으로 아니역일수없습니니다.

그러나 아즉도, 나의 技量이 이先生들의 일흔을 더욱 빛나게하지못하는것은 죄송스럽게 끝이 없는일입니다.

上記 두분先生은 오늘날 모든 雅樂部를 勇退하시어 悠久自適에 閑日月을 보내시는데, 지난날의 不敏한 琴生은 玄琴科教授로 後進을 培養함에까지 박귀였습니다. 藝道의 精進이 限度가 없는것은알면서도 自己가 이것으로 大成할날이 있을까를 省思하여보기도 가끔입니다.

사람에게 琴道를 傳授하게되면서부터 自己는 더욱더 玄琴의길이 어려운길일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사람있어 나에게 玄琴의 妙濟를 묻는다고하면, 나는 서슴지않고, 玄琴은 그技術보다도 그人格이로다 對答하기를 주저하지않겠습니다.

朝鮮雅樂이 그러하지만, 玄琴의 彈法을 보면 그 爲人됨을 넉넉히 짐작된다하는것이 古老의 말씀이십니다.

이즘, 玄琴이 絃樂器中에도 王者이오하니까, 已往 雅樂을 해보면 玄琴을 하여보겠다는 好奇心으로 玄琴을 崇尚하는것같으나 이것같이 愚昧한 生覺은 없는줄입니다.

흔히 正樂이니 正律이니하고 玄琴으로의 普調를 귀에하는데, 別々 淺窄한 弄結과 雅正하달수 없는 彈法이 많은것은 우리의 자랑할 玄琴을위하여 遺憾이라하겠습니다.

참으로 自己가 처음 玄琴을 만지기始作하여서 現今의 朝鮮音樂界의 狀況을보면 十年一昔이 두 번이나 되더라도 隔世의 感이 不無합니다.

一般社會의 朝鮮音樂에 對한 理解랄지 認識도 내가 처음 雅樂에 從事할때보다는 여간 深厚하여진것이아니오 따라서 樂人의 素質과 人格도 매우 向上된것은 즐겁습니다.

歷史的인 우리의 固有한 樂器 玄琴을 어떻게 더 우리에게 가까운 樂器가되게하느냐는 問題가있으나, 他日로 밀우겠습니다.

(「朝光」 제 7 권 4호, pp. 262-266)